



KWC 2019

미수입 와이너리

2019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가 총 704종의 참가로 15번째의 행사를 시작하였다. 매년 세계 와인생산국에서 새롭게 KWC의 문을 두드리는 와이너리들의 참여는 이제 KWC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도 26곳의 미수입 와이너리들이 124종의 와인을 출품하여 그들의 기량을 뽐냈다.



FRANCE

Famille Coste

파미유 코스트

파미유 코스트는 도멘 드 라 샬리테(Domaine de La Charite)라는 이름으로 처음 양조를 시작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오랜 세월부터 성직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곳으로 매해 와인이 만들어 지던 곳이었다. 이들은 1964년까지 3세대를 이어오면서 5ha의 토양을 소유하게 되었다. 1991년 파미유 코스트는 속해있던 협동조합에서 분리해 15ha의 토지를 가지고 새롭게 와이너리를 오픈하였다. 파미유 코스트는 그라나슈, 시라, 무르베드르, 까리냥, 쟁소, 그라나슈 블랑, 비오니에를 재배하여 레드, 화이트, 로제의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며 꼬뜨 드 론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MOROCCO

Les Celliers de Meknes

레 셀리에르 드 메크네스

모로코의 옛 수도 메크네스에 위치한 레 셀리에르 드 메크네스 와이너리는 모로코의 와인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이 위치한 포도밭은 모로코의 첫 AOC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메크네스 지역은 아틀라스 산맥이 둘러싸여 있는 고도가 높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지중해의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포도재배에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레 셀리에르 드 메크네스는 약 2,00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샤르도네, 까리냥 등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양조의 과정도 전통과 현대적인 시스템을 접목시켜 모로코 와인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CHILE

Sur Valles

수르 발레스

수르 발레스는 산티아고 아추라 라렌(Santiago Achurra Larrain)이 1961년 칠레에 설립한 가족경영 그룹이다. 이들이 소유한 와이너리 중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이 비냐 레킨구아(Vina Requingua)이다. 이들은 마이포 밸리, 카차포알 밸리, 콜차구아 밸리, 쿠리코 밸리와 마울레 밸리 13곳에 총 850ha가 넘는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Vina la Rosa

비냐 라 로사

비냐 라 로사는 1824년 칠레의 광산 사업가였던 프란시스코 오싸 이 메르카도(Francisco Ossa y Mercado)가 카차포알 밸리에 위치한 포도밭을 매입하면서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6대째인 이스마엘 오싸(Ismael Ossa)가 와이너리를 경영하고 있다. 이들은 카차포알의 페우모 지역에 60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페우모는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중해성 기후를 갖는다. 비냐 라 로사의 와인은 부드러운 탄닌과 풍부한 향, 균형 잡힌 산도와 다양한 캐릭터를 품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DOS ALMAS

Dos Almas

도스 알마스

7세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탈리아의 유명 와이너리인 조닌(Zonin)은 그들의 뛰어난 양조 기술을 알리기 위해 대양과 대륙을 횡단하여 칠레에서 완벽한 테루아를 찾아냈다. 조닌 가문은 이탈리아의 와인 메이킹의 전통을 칠레의 토양에서 표현하기 위해 도스 알마스라는 와이너리를 오픈했다.

도스 알마스 와이너리는 콜차구아 밸리, 카사블랑카 밸리, 마이포 밸리에 각각의 포도밭을 두고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각각의 포도밭은 산과 계곡을 끼고 높은 고도에 위치하며 각기 다른 미세기후로 인해 독특한 개성을 갖는다. 도스 알마스는 이곳에서 스파클링, 리제르바, 그란 리제르바, 크뤼의 레인지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ITALY



Cantina Casalfarneto SRL 간띠나 카살파르네토

바다와 아펜니노 산맥을 끼고 있는 마르제 지역에 위치한 카살파르네토 와이너리는 앙꼬나의 아름다운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베르디기오 품종을 대표하는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카살파르네토는 이곳에 35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포도밭은 유기농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전통과 최신식 설비 시스템, 지속가능 시스템을 기본으로 프리미엄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토니(Togni) 그룹의 소유인 카살파르네토는 현재 파올로 토니(Paolo Togni)가 대표로 있으면서 와이너리 경영을 맡고 있고 세계 유수의 와인 컴퍼티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San Lorenzo Vini 산 로렌조 비니

산 로렌조 비니는 이탈리아의 중부, 아브루소의 테라모(Teramo)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가족경영 와이너리로는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산 로렌조 비니는 총 150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밭은 아펜니노 산맥에서 가장 높은 그란 사소(Gran Sasso)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의 토양은 점토질과 석회암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 로렌조 비니는 천연 효모를 이용한 발효 양조의 과정 중에 완벽한 온도 조절, 저온 침용 등 전통적인 양조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기에 최신식 시스템을 균형 있게 적용하여 고품질의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Corte Aura 코르테 아우라

코르테 아우라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의 프란차코르타(Franciacorta)에 위치한다. 와이너리 이름의 '코르테(Corte)'는 중세시대 이곳에 터를 잡았던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승들이 이곳을 명명했던 'cort franche'에서 따왔다. 그리고 '아우라(Aura)'는 그리스 말 'alos'에서 유래한다. 즉 '왕관'을 뜻하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이 이 지역을 대표할 만큼 빛이 난다고 해서 붙여졌다.

또한 이곳은 거북이를 상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꾸준히 퀄리티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코르테 아우라는 현재 최고의 버블과 우아한 맛을 지닌 프란차코르타라는 평을 들으며 해외 시장 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Schola Sarmenti 스콜라 사르멘티

스콜라 사르멘티는 이탈리아의 남부 풀리아의 살렌토(Salento)에 본거지를 둔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와인을 양조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부터이다. 스콜라 사르멘티의 로산젤라(Rosangela), 알렉산드로(Alessandro) 형제들은 셀러를 재정비하고 2000년 그들의 첫 수확을 경험한다.

하지만 처음의 와인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 이후 10년 이상을 노력한 결과 스콜라 사르멘티의 미래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풀리아의 프리미티보, 네그로아마로의 오랜 수령의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어린 나무를 키워 새로운 블렌딩을 시도해보고 있다.



Cantine Mucci 간띠네 무치

간띠네 무치는 1895년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소의 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된 곳이다. 무치 집안의 조상인 루이지 무치(Luigi Mucci)는 와인에 대한 지식, 열정, 토양에 대한 사랑이 세 가지 요소를 능숙하게 혼합하여야 최고의 와인을 얻을 수 있다고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현재 아우렐리아(Aurelia)와 발렌티노(Valentino)는 이 가르침을 기본으로 가족들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와인의 품질과 효율성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하이테크 와인 양조 및 셀러의 투자가 함께 이어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는 간띠네 무치의 몬테폴치아노, 트레비아노 다브루쥬, 팔랑기나 테레 디 끼에피, 삐꼬리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OUTH AFRICA

St Leger Wines 세인트 레거 와인즈

세인트 레거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콘스탄티아 밸리(Constantia Valley)에 위치한 부띠끄 와이너리이다. 이들의 포도밭은 웨스턴 케이프의 시원한 기후와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 프리미엄 와인 생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890년부터 포도 이외의 다른 작물을 생산하던 세인트 레거 와인즈는 수세기 동안 큰 변화를 겪으며 요하네스 라트펠더(Johannes Rathfelder)가 투자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인 엠마누엘 오토(Emmanuel Otto) 라트펠더가 경영을 이어받으며 와이너리로서의 체구실을 하게 되었다. 오토는 재능있는 와인 메이커로 유럽의 와인 생산국에서 쌓은 경험을 세인트 레거 와인즈에 쏟아 붓고 있다.





SPAIN



DOMINIO DE PUNCTUM
ORGANIC
&
BIODYNAMIC WINES

Dominio de Punctum S.L. 도미니오 데 폰쿰

라스 페드로네라스(Las Pedroneras)와 스페인 북부 와인 지역인 라 만차(La Mancha)의 북단에 위치한 도미니오 데 폰쿰은 독점적인 생산력과 독창적인 와인,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으로 관리하는 포도밭 등으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다.

도미니오 데 폰쿰은 스페인에서도 수세기 동안 전해오는 전통적인 포도 재배법과 현대적인 농업 수단의 조화와 유기농 및 바이오다이내믹의 인증으로 이상적인 포도재배에 주력하고 있다. 페르난데스(Fernandez)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이곳은 현재 200ha를 정도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가진 와인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Bodegas Albero 보데가스 알베로

1882년 와인 생산을 시작한 보데가스 알베로 그룹은 가족경영으로 와이너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스페인의 와인산지인 쿠엥카, 리베라 델 주카르, 에클라, 비에르조에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토착 품종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와인 생산 흐름에 발맞춰 와인을 생산한다. 여기에 미국, 중국, 홍콩 등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해외 시장에도 발을 넓히고 있다.

또한 친환경 포도 재배와 유기농, 바이오다이내믹 농법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가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핵심 지역인 마드리드 북동쪽 쿠엥카에 위치한 벤타 데 포스타는 200ha 전부가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GEORGIA



Badagoni Wine 바다고니 와인

바다고니 와인은 2006년 조지아 와인 생산의 중심지인 카케티(Kakheti)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조지아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지역별 와인 생산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베르톨라조(Bertolaso) 와이너리와 와인 양조학자인 도나토 레나티(Donato Lanati)의 협력 아래 더 탄탄한 와인 생산에 힘쓰고 있다. 바다고니 와인은 치난달리(Tsinandali), 무꾸자니(Mukuzani), 킨즈마라올리(Kindzmarauli), 구리얀니(Gurjaani), 사페라비(Saperavi), 아카셰니(Akhasheni) 등의 조지아 토착 품종을 재배하여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뿐만 아니라 스파클링의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PORTUGAL

Adega Cooperativa de Redondo

아데가 코페라티바 데 레돈도

아데가 코페라티바 데 레돈도는 16세기 필록세라의 영향을 받으며 포도재배와 올리브 나무를 혼합작물로 키우며 생존을 이어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4명의 포도재배업자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와이너리를 오픈하고 와인 생산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들은 알렌테주와 와인 잠재력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80년대에 들어서자 와인 셀러, 생산량, 구조의 증가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와이너리는 알렌테주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생산자 중 하나로 약 200여 명의 생산자가 가입되어 있으며 알렌테주의 레돈도 지역의 약 95%의 와인 생산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Saven S.A. 세이벤

세이벤은 포르투갈의 와이너리를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다. 20여 년의 운영 기간을 거친 세이벤은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받는 품질의 와인을 판매하고 해외 파트너들에게 영업, 판촉, 물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성장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위해 이들은 포르투갈의 와이너리, 와인 마케팅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 협력을 통해 세이벤은 포르투갈의 매우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지역의 와인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국제 박람회 및 와인 시음회, 와인 품평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포르투갈 와인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Casa Ermelinda Freitas 까자 에르멜린다 프레이타스

까자 에르멜린다 프레이타스는 1920년에 설립된 곳으로 세투발의 팔메라(Palmela) 지역의 페르난도 포(Fernando Po)에 위치한다. 포도밭은 총 445ha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양은 해변 모래와 유사하여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게 뻗고 있어 포도의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건조한 여름 동안에는 인근 강가의 바람이 포도밭을 서늘하게 해주어 와인에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선사한다.

까자 에르멜린다 프레이타스는 이곳에서 29 종류의 포도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1년에 약 1,200리터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1999년 이후 해외의 유명 컴피티션에서 1,000여 개가 넘는 메달을 수상하면서 와이너리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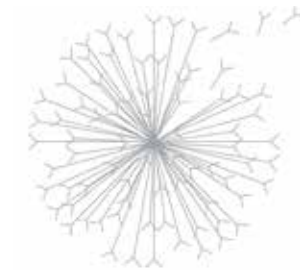
A U S T R A L I A

Dandelion Vineyards

단델리온 빈야드

단델리온 빈야드는 호주의 바로사 밸리에 위치한 가족경영 와이너리이다. 포도가 재배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찾아 포도밭을 선택한 이곳은 각각의 포도밭이 가진 독특한 캐릭터를 살리고 본인들의 페루아를 와인에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곳은 2014년 호주 와인 컴퍼티션에서 5개의 별을 받아내며 호주를 넘어 세계의 와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현재 단델리온 빈야드는 바로사 밸리에서 시작하여 맥라렌 베일, 이든 밸리, 아들레이드 힐스의 지역에서 포도밭을 확장시키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젊은 와인메이커들로 구성된 와인양조팀들은 훌륭한 전통과 도전을 접목시켜 이상적인 와이너리로 자리 잡는데 노력하고 있다.



Dandelion Vineyards
wish you were here...

HEIRLOOM VINEYARDS
AUSTRALIA EST. 2004

Heirloom Vineyards 에어룸 빈야드

에어룸 빈야드는 2000년 빈티지부터 시작된다. 자르 브룩스(Zar Brooks)와 와인메이킹을 공부하던 엘레나(Elena)는 맥라렌 베일을 방문한 뒤 이곳에서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전통과 오래된 포도밭, 그리고 각 품종별로 최고의 클론의 개발에 힘썼으며 여기에 모든 포도밭들은 유기농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다.

자르와 엘레나는 그들이 원하는 와인을 얻을 때까지 7번의 수확을 경험하고 양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했다. 현재는 맥라렌 베일 이외에도 아들레이드 힐스, 바로사 밸리, 쿠나와라, 이든 밸리 등 호주의 유명 산지에 포도밭을 확장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Taylors Family Wines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즈

1969년 설립된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즈는 남 호주 클레이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총 178ha를 소유하고 있는 이곳은 빌 테일러(Bill Taylor)와 그의 아들 빌(Bill)과 존(John)이 함께 와이너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3대째를 이어오고 있는 가족경영 와이너리인 테일러스 패밀리 와인즈는 1973년 첫 빈티지인 테일러스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Australian National Wine Show>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클레이 밸리를 대표하고 있는 와이너리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협회의 멤버로서 이 협회에 속한 12곳의 와이너리들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도 겸하고 있다.



Sister's Run 시스터스 런

시스터스 런 와이너리는 호주의 맥라렌 베일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밭을 가족경영으로 이어오고 있는 시스터스 런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도전적이고 이들과의 색다른 개성을 돋보이는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특히 재능있는 젊은 와인메이커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엘레나는 "우리는 우리가 와인을 먹는 것만큼 너무 진지하게 와인을 만들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와인은 당신이 좋아하는 와인이다. 이 기준으로 좀 더 자유롭게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스터스 런은 맥라렌 베일, 이든 밸리, 바로사 밸리 등지에 포도밭을 확장하고 있다.



Zonte's Footstep 존테스 풋스텝

존테스 풋스텝 와이너리는 와인에 대한 열정, 양조의 기술, 위대한 와인을 생산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다. 존테스 풋스텝은 바로사 밸리, 맥라렌 베일, 랭혼 크릭, 아들레이드 힐스 및 기타 호주의 와인 생산지역의 출신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이 나고 자란 지역의 와인들의 개성을 공유하며 와인 양조의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이곳은 소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한 예로 이곳의 셰프들이 준비한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와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곳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모자, 티셔츠 등의 기념품들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샵을 운영 중이다.



Ashbrook Estate

Ashbrook Estate 애쉬브룩 에스테이트

3대째 데빗(Devitt) 가문의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쉬브룩 에스테이트는 1975년 호주의 마가렛 리버의 심장부에 포도밭을 사들였다.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하면서 애쉬브룩 에스테이트는 호주의 와인 평론가 제임스 할리데이로부터 5개의 별을 받으며 호주의 탑 와이너리로 부상했다. 제임스 할리데이는 애쉬브룩 에스테이트를 호주에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가진 와이너리 중 하나이며 포도 재배 및 와인 양조에 있어 까다로운 방식을 고수한다고 평하고 있다. 40여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애쉬브룩 에스테이트는 현재 포도밭의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시스템의 실천에도 열심이다.



Gibson Wines 깁슨 와인즈

롭 깁슨(Rob Gibson)은 이십여 년 정도 호주의 유명 와이너리인 펜폴즈에서 와인메이커로 경험을 쌓은 후 바로사 밸리의 전통성에 포커스를 맞춘 와인 양조에 뜻을 품고 깁슨 와인즈를 설립했다. 깁슨 와인즈는 호주의 와인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할리데이로부터 5개의 별을 받으며 안전한 출발을 보였다. 현재 깁슨 와인즈는 바로사 밸리 이외에도 이든 밸리, 아들레이드 힐스에 포도밭을 확장하고 총 8개 레인지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깁슨 와인즈의 이든 밸리 리슬링은 후레시하고 우아한 맛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들레이드 힐스의 빼노 그리와 바로사 밸리의 쉬라즈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W